

가왕의 귀환

54년만에 첫 싱글 '찰나'·'세렝게티 처럼'
26~27일·다음달 3~4일 서울서 콘서트
예매시작 30분만에 4만석 전석 매진



'가왕' 조용필이 18일 9년 만의 신보인 싱글 '로드 투 트윈티 - 프렐류드 1' (Road to 20-Prelude 1)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YPC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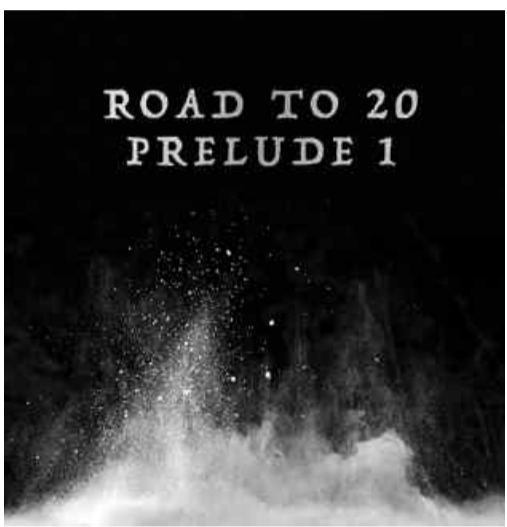
이번 신보는 2013년 크게 히트한 정규 19집 '헬로' (Hello) 이후 9년 만이다. YPC는 "이번 신곡은 '로드 투 트윈티'라는 제목처럼 내년 말 발매를 목표로 작업 중인 정규 20집의 리드 싱글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1968년 데뷔 이후 19장의 정규음반을 발표한 조용필이 싱글 형태로 신곡을 내는 것은 54년 만에 처음이다. 조용필은 데뷔 55주년인 내년 상반기에는 20집 일부 곡을 담은 미니음반도 계획 중이다.

이번 싱글에는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두 곡이 담겼다. 두 곡 모두 해외 프로듀서가 작곡하고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노랫말에 참여했다.

'찰나'는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적인 순간인 그 찰나를 포착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다. 세련된 사운드와 조용필의 감각적인 코러스가 어우러진 팝 록 장르다.

'세렝게티처럼'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좁아진 시야를 드넓은 평원처럼 다시 넓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나아가자는 모두를 향한 응



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조용필은 이 곡의 데모(임시녹음곡)를 처음 듣고 약 20년 전 방문한 세렝게티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이 연상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조용필은 악보를 손수 그리고, 끊지 않고 녹음하는 '원 테이크' 기법으로 수십 번을 불러 레코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왕'의 귀환 소식에 가요계 안팎에서는 그가

어떤 음악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2013년 '헬로'와 '바운스' (Bounce)로 음원 차트 정상을 석권하는가 하면, 솔한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해 연말 음악 시상식인 'MAMA'에서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다.

조용필은 이달 26~27일과 다음 달 3~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조용필 & 위대한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 공연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4만석 전석이 팔려나간 바 있다.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장미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000만장 돌파, 일본 내 한국 가수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동주문학상' 26일 서울서 시상식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주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주최하는 제7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강호화랑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주문학상을 수상한 안은숙 시인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안 시인의 수상작 '정오에게 레이스 달아주기' 등 5편 대해 "누군가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멸의 징후 속에서 불린 아름다운 노래들"이라며 "서정과 실험의 양상이 잘 결합해 중요한 시적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됐다"고 평한 바 있다.

서울 출신의 안 시인은 건국대 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2015년 '실천문학'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2017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문학 분야 선정작가로 선정됐다. 제1회 시산맥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지나간 월요일쯤의 날씨입니다'가 있다.

또한 해외작가상 김선호 시인, 특별상 문금숙 시인과 신인상 협인숙 시인은 지난 9월 20일 시산맥 문정영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LA 코리아타운에서 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번 동주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제1회 시산맥 기후환경문학상 신인상 조영심 시인에 대한 시상, 제17회 최치원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은여 시인에 대한 등단패 증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콘텐츠 발굴·실행 전문가 배출



융복합콘텐츠 등 4개 분야 7명

아시아문화전당(ACC)의 문화예술 전문 실무 교육을 마친 전문가 7명이 배출됐다.

ACC는 전문인 '콘텐츠발굴·실행' 교육 과정을 마친 수료생 7명을 최근 배출했다. ACC 전문인 '콘텐츠발굴·실행'은 문화예술 현장을 체험하는 실무교육으로 융복합콘텐츠, 미디어파사드, 실감형 미디어와 실감콘텐츠 등 총 4개 분야 교육이다.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분야별 기획자, 작가, 전

시분야 기술 전문가(전시테크니션) 등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PART 1'은 콘텐츠별 기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PART 2'와 'PART 3'는 이론과 실습, 이후 직무 실습으로 이어지는 심화 과정이다.

ACC는 2016년 전시분야 기술 전문가(전시테크니션)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했다. 올해는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군탐색'과 '콘텐츠발굴·실행'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지상파는 '중계 월드컵'

3사, 10초 빠른 모바일 앱·AI 승부 예측·메타버스 플랫폼 등 선보여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해 방송가도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월드컵의 파란만장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우선 SBS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약 10초 빨라진 중계를 제공한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바꿔가며 들을 수 있는 멀티 오디오 스트리밍 중계도 선보인다.

KBS는 인공지능(AI) 기술 '축구AI'를 활용한 승부 예측 결과를 제공한다. '축구AI'는 수많은 축구 경기의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각 팀의 공격패

턴을 분석, 그 결과를 디지털 코드로 구조화한다. 이를 토대로 각 팀의 공격과 유효전술, 공격 성공률, 슈팅 성공률, 전술 중합을 실시간 분석하고 각 팀 예상 득점을 제시한다.

MBC는 가상 세계에서 카타르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력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과 선수들의 라커룸, MBC 스포츠 중계석 등 다양한 가상 공간을 조성했다.

방송사들은 카타르 현지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경기의 하이라이트와 관전 포인트를 짚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MBC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열린 경기들을 미리



MBC 김성주 캐스터, 안정환·서형욱 해설위원

분석하는 '카타르시트'를 편성했다. 대표팀의 소식을 전하고 경기별 전력을 분석한다.

KBS도 월드컵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 뉴스에 특별 코너를 신설했다. /연합뉴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시 관객'

광주비엔날레, 23일 아르코미술관과 GB 토크

포스트-코로나 시대 확장된 온라인 전시 환경 속에서 관객의 니즈와 동향을 탐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관장 임근혜)과 함께 GB X ARKO토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시 관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 온라인 Zoom으로 오후 3시 45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된다.

이번 GB토크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온라인 전시 콘텐츠에 대한 관객의 경험과 요구를 파악해 모객 전략을 수립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두 단체는 행사 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행사를 진행한다.

진행은 변지혜 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맡았으며 ▲박소현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연구소) ▲심보선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이숙경 예술감독(제14회 광주비엔날레)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전에 열린 '전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필요성', '광주 만들기' 등 두 차례 GB토크는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